

“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루카 4,21)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고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며,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 몸이 되어, 질병과 기아, 전 지구적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누기로 다짐하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 **입당송** 시편 96(95),1.6

- **제1독서**

느헤 8,2-4.7.5-6.8-10

- **화답송** 시편 19(18),8.9.10.15(◎ 요한6,63ㄷ 참조)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제2독서**

1코린 12,12-30

- **복음환호송** 루카 4,18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1-4; 4,14-21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맞은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성경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정하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이념과 정당의 이익을 떠나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3.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몸소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저희는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일치하신 주님, 중동 한인 공동체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 **영성체송**

시편 34(33),6 참조

오늘의 전례: 설

오늘은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뿐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 제1독서

민수 6,22-27

• 입당송 마태 28,20 참조

• 화답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17ㄱ)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 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2독서

야고 4,13-15

• 복음환호송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2,35-40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을 차리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며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마침내 교회로 이끌 수 있게 하소서.
2. 공직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로우신 주님,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맡은 일에서 배려와 친절로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3.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설을 맞아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이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겪으며 최선을 다한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일치의 주님, 중동 한인 공동체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 영성체송

히브 13,8

[UAE] '설' 합동 위령 미사

▶ 두 바 이: 1 월 26 일 주일 14:00,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아부다비: 1 월 25 일 토요일 12:00, 성 요셉 성당 페리시홀(르와이스, 바라카 합동)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고,
그대를 지켜주시길.

민수 6,24

시편 130(129)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 리나 이다



○ 깊은-구렁 속 에서- 주 님께 부르 짓사 오니



주님 - 제 소 리를 들어 - 주 - 소서



● 제가- 비는 소 리를 귀 여겨- 들으 소서



○ 주님 - 께서 죄 악을- 헤아 리신 다면



주님 - 감 당 할자 누구 - 이 - 리까



● 오 - 히려 용서 하 십이- 주 님께 있사와



더 - 더욱 당 신을 섬 기라 하시- 나- 이다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리 으며



당 - 신의 말 씀을 기다 - 리 나 이다



● 파수 -꾼이 새 벽을- 기다 리기 보다



제 - 영 혼이 주 님을 더 기다 - 리나 이다



○ 파수 -꾼이 새 벽을- 기다 리기 보다



이스-라 엘이 주 님을 더 기다 - 리나 이다



● 주님 - 께는 자 비가- 있사 읍고



풍요 -로운 구 속이 있음- 이 - 오니



○ 당신 - 께 서는 그 모든- 죄악 에서



이스-라 엘을 구속 하시- 리 - 이다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 리나 이다

[아캠] 2025년 아캠 총회

중 동 한 인
AKCCME 가 톨 릭
공 동 체



- ▶ 대 상 : 회장단 및 각 공동체 여성 대표
- ▶ 일 시 : 1월 25일 (토) 20시 (UAE 기준)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으로 접속(회의 번호: 895 0419 9583, 비밀번호: 1004)
- ▶ 안 건 : 신임 위원 소개, 회칙 리뷰, 연간 계획, 재정 보고, 신임 회장 선출 등
※ 대표 유고시, 반드시 대리자를 지정하여 참석해 주십시오.

[UAE] '설' 명절 합동 위령 미사

- ▶ 아부다비: 1월 25일, 토요일 12:00, 성 요셉 성당 페리시 홀 (루와이스 / 바라카 포함)
- ▶ 두 바 이: 1월 26일, 주일 14:00, 성 프란치스코 성당
- ※ 공동체에서는 차례상, 위령 명단, 연미사 예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 ※ 미사 중 연도(시편 129편) 및 가족 분향이 있습니다.



[아캠] 전담 사제 공동체 사목 방문 일정



- ▶ 방 문 : 카타르 공동체
- ▶ 기 간 : 2월 5일(수) ~ 2월 8일(토)

[교종 프란치스코] 1월 기도 지향

1월: 교육을 받을 권리

이주민과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를 언제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진춘언 요한보스코 (아부다비 공동체)



우리들의

<목성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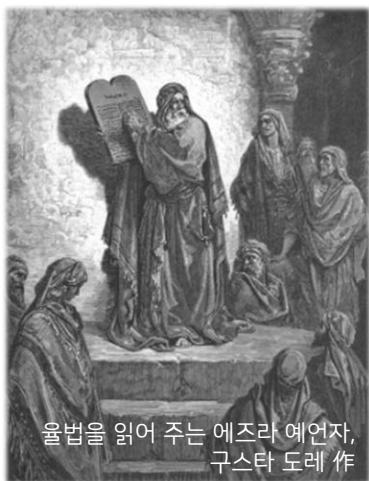
아부다비의 겨울밤 하늘엔 별이 밝습니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항성이라고 하고
지구처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별은 행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부다비 밤하늘엔 밝게 빛나는 행성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진 후 서쪽 하늘에 나타나는 별은 금성입니다.
가장 밝게 빛납니다. 요즘은 저녁 6시쯤 보이기 시작해서, 아홉시쯤 서쪽 하늘로 집니다.
그 시간대에 머리 위 약간 동쪽 하늘에 보이는 별은 목성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새벽 3시쯤 지네요.
저녁시간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별은 화성입니다. 저녁 6시쯤 동쪽 하늘에서 떠서 아침 6시에 서쪽으로 지네요.

그러니 저녁 7시쯤 하늘을 보면 서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 머리 위엔 목성, 그리고 동쪽 하늘엔 화성이 보입니다. 요즘 6개의 행성이 일렬로 선다고 하는데, 금성, 화성 그리고 목성 외에는 육안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밝아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공위성은 작고 멀리 있어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정거장은 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빠르게 움직여서 구분이 쉽다고 하네요. 요즘은 달이 자정이 넘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밤하늘 별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끝없이 넓은 우주에 밝게 떠서 빛나는 별들을 올려다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느끼곤 합니다.





율법을 읽어 주는 에즈라 예언자,
구스타 도레 作

WHO? In the BIBLE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율법 준수를 통해 개혁 외친

예언자 **에즈라**

가톨릭교회는 공의회 등을 통해 개혁을 계속해 왔다. 물론 개혁은 중요한 교리나 교회의 전승을 간직한 채 교회가 그 시대에 맞게 살도록 하는 변화였다.

1914년 8월 20일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도 바오로를 주보로 모시는 수도회를 만들어 사회 홍보 수단을 통해 선교에 종사하려고 시도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현대 문명의 이기는 세속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심지어 죄악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오히려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선교에 선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시도를 위험하다고 악평하는 교회 내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개혁은 자고로 공격과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현대의 최고 영성 지도자로 존경받는 안셀름 그윈 신부님에게 코로나가 성행할 당시 나는 ‘코로나 종식 후 교회에 변화가 올까요?’하고 질문한 적이 있다.

그때 그윈 신부는 단호하게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하셨다. 교회는 많은 이탈자(특히 젊은 층)가 생길 것이고 교회는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셨다.

실제로 최근 주임 신부님들은 젊은이들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그윈 신부님은 그동안의 사목 패러다임이 변화되지 않으면 신자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라 염려했다. 이제 교회는 안에서 신자들을 기다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그야말로 개혁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사제들과 레위인들, 바빌론으로부터 유배에서 돌아온 이들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집 짓는 이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성전이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다.(에즈라 3,8-13 참조) 그리고 성전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완공되었다.

예언자 에즈라(기원전 480-440년)는 바빌론 유배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해이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준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그를 제2의 모세로 부른다. 그는 유배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우상 숭배를 강력히 규탄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즈라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느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동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동체를 정화하려고 노력했다.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벽 공사를 완성하자, 에즈라는 모세 율법을 모은 책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 유배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성들과의 결혼으로 더욱더 이스라엘의 신앙에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했다. 백성과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고 모든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었다. 에즈라의 개혁은 모세 오경의 준수 등, 이스라엘의 기본에 충실한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 가톨릭 신문, 허영업 마티아 신부의 <성경 속 인물> 中 편집



2025년 '희망'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 아멘.



그리스도교 일치 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 아멘.



선 · 생 · 님 · 공 · 금 · 해 · 요 ·



<2> 신부님 옷은 몇 벌이에요?

미사 후 신부님이 성당 입구에서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이 쏘르르 달려오더니 묻습니다.

“신부님 옷이 달라졌어요. 아까 미사 때는 흰색 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세요?”

“지금 신부님이 입고 있는 옷은 치마가 아니고 발밑까지 내려오는 ‘수단’으로, 성직자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옷이란다.”라고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학생은 곧장 “그럼 미사 때 입은 옷은 뭐라고 불러요?”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사제들이 입는 옷도 각기 명칭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학생이 의문을 갖고 또 질문한 것입니다. “제의라고 한단다. 지금부터 제의에 대해 알려줄게.”

제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입는 제복

제의는 해당 미사의 고유한 뜻과 축일의 의미에 따라 그 색깔이 다양하다. 현재 가톨릭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색깔은 인노첸시오 3세 교황(1198~1216 재위)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흰색·붉은색·녹색·자주색·검은색’ 다섯 가지로 나뉘며, 실제로는 일곱 색깔을 쓴다.

▶ **흰색**: 흰색은 요한 묵시록에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묵시 3,4)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결백과 기쁨’을 상징한다. 그래서 흰색 제의는 부활 축제를 비롯한 주님 성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등 대축일에 입는다.

▶ **붉은색**: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는 동시에 ‘열과 사랑’을 표시하는 색깔로 성령 강림 대축일, 사도들의 축일 또는 순교자들의 축일에 착용한다.

▶ **녹색**: 녹색은 ‘생명의 희열과 희망, 영생’을 뜻한다. 가톨릭 신자들의 영생에 대한 희망을 뜻하는 녹색 제의는 주일 미사에 입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어린 양들을 푸른 목장으로 인도함’을 뜻한다.

▶ **자주색**: ‘참회와 보속’을 뜻하며,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입는다.

▶ **검은색**: 검은색은 ‘죽음’을 뜻한다.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 금요일과 일반 위령 미사 때 사용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장례 또는 위령 미사 때 검은색 제의를 사용하지 않고, 흰색 제의를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색깔을 사용하지만, 이외에 장미색, 황금색을 착용하는 때도 있다.

▶ **장미색(분홍색)**: 대림 제3주일과 사순 제4주일에는 장미색(분홍색)을 입는다.

▶ **황금색**: 황금색은 미사의 ‘성대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흰색·붉은색·녹색을 사용하는 축일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특별히 제의 색을 특정해 착용할 수 없을 때 공통으로 입는 것은 흰색이다.

신부님이 미사 때 입는 제의에 대해 설명해 주었더니, 그 학생은 또 무엇이 궁금한지 곰곰이 생각하더니 “신부님 제의에 십자가가 앞에도 뒤에도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예수님 십자가 한 개, 미사 때 제대 위에도 십자가 한 개, 그런데 신부님 제의에는 앞, 뒤로 십자가가 두 개나 있네요?”라고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십자가에 뜻이 있기 때문이란다. 제의 앞의 십자가는 ‘사제 자신이 저야 할 십자가’를 상징한단다. 제의 뒤에 있는 십자가는 ‘신자와 이웃이 저야 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겠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제의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거야.”

“십자가에도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었네요.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를 텐데 알려주시면 좋겠어요”라면서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참 예뻐니다.

이처럼 미사 때 제의의 색을 보고 그날 전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 신문, <박모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가로세로 낱말퀴즈 제 2 호 정답 공개

			연		베	들	레	험	
목	주	기	도		드		퀴		
	님				로		엠		
	공								루
	현					삼	위	일	체
사				그			령		
도				리					아
신	터	클	레	스		모	든	성	인
경				도					카
			삼	왕					렘

Congratulations!

당첨자: 쿠웨이트 주일학교 T1
(윤연서 소피아, 남우혁 알렉산데르,
김신비 벨리나)

정답자: 서동숙 베로니카 (쿠웨이트 공동체)
주일학교 T1 - 윤연서 소피아, 남우혁 알렉산데르,
김신비 벨리나 (쿠웨이트 공동체)
주일학교 T2 - 김시연 미카엘라, 윤지민 미카엘라,
부루유진 실비아, 남채원 챌리나 (쿠웨이트 공동체)
서민희 세라피나 (아부다비 공동체)
윤민정 세실리아 (두바이 공동체)

※ 정답자 중 당첨자(1인)은 raffle draw로 추첨하였습니다.
당첨자 추첨 영상은 '아캠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캠 카페 (<http://cafe.daum.net/akccme>)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 김보연 안젤라 (055. 360. 0733) (054. 396. 1010)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1.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2.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3. 특례 입시 전문 4.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